

전북 농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

매출 10억원 이상 농식품기업 대상 조사 실시... 171곳 기초단계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식품기업 대상 '2025년 기억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추진... 24일까지 공모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한 농식품기업이 늘어나는 등 농식품 분야에서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023년 농생명식품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매출 10억 원 이상 농식품기업 542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 기업 454개소 중 38%인 171개 기업이 기초단계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부안군 내 조사된 27개 기업 중 74%인 20개 기업이 기초단계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서 가장 높은 구축률을 보였고, 정읍시가 51개 기업 중 49%인 25개, 순창

군이 20개 기업 중 45%인 9개 기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171개 기업 중 81%에 해당하는 139개 기업이 기초수준의 스마트공장을, 19%에 해당하는 32개 기업이 중간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공장은 제조 공정에 자동화 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농식품 기업에도 스마트공장 도입이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인해 스마트공장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농식품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참여한 70개 기업 가운데 32개 기업이 농식품기업에 해당했다. 실제 사례로 정읍시에 소재한 A업체는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간편 자동화 단계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공정 생산라인을 최적화했다. 그 결과 생산성이 78% 증가했고, 제조 시간은 72% 단축됐다. 또 다른 B업체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도입해 월 생산량이 20% 증가했고, 포장 시간은 23%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모에도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10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연동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의 도입이다.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식품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 국장은 "영세한 농식품기업의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생산성은 높이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도내 농식품기업들이 경쟁력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2025년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본격 추진

Kdata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접수... 14일까지
도내 데이터산업 확대 공급·수요기업 성장 지원

2025년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 Kdata), 전북테크노파크와 협업해 전북테크비즈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대상 '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전북 지역설명회를 가졌다. 2025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과기부가 총괄하고 Kdata가 전담하며,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디지털 전환·데이터 활용 촉진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총 207억원 규모 460건을 선별하며,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데이터 구매, 일반가공, AI가공을 각각 분리 선정했던 방식에서 올해는 구매·가공·분석을 통합 활용토록 변경됐다. 공모 분야는 일반분야 450건에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및 제품개발·신규서비스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청

년기업 포함)가 신청할 수 있다. 사회현안 해결 분야 10건은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소멸·기후변화·질병·재해·안전사고 기술혁신·연구 등을 위해 △행정기관·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Kdata는 공모 선정시 전체 사업량의 비수도권 지역기업 40%, 청년기업 40%, 영세 소상공인 5% 등 할당기준을 세외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북 지역의 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수요기업은 데이터 활용(구매, 가공, 분석 등) 및 일반분야에 대해 오는 3월 14일까지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https://kdata.or.kr/pms>)에 접속해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는 2023년부터 과기부 산하 Kdata와 데이터 활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데이터 수요기업 발굴 및 공급기업 성장 지원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 협력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새만금개발공사, 외국교육기관 설립 '맞손'

새만금 지역에 글로벌 교육환경·국제적인 정주 환경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새만금 수변도시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공사는 6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해 새만금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뜻을 모았다. 전북자치도와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호남권의 외국 유학 수요를 지역 내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화 유출 방지와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교



새만금 수변도시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전북자치도-새만금개발공사 업무협약식이 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와 나경균 사장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육기관 유치에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학교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새만금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협력사업 발굴 및 공조 등이

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이 아시아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외 우수 교육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며,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계획이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단순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넘어, 새만금 지역을 국제적인 정주 환경으로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외국인 교육 여건이 개선되면 해외 투자기업과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기금 추가 확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기금 18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총 사업비가 기금 195억원을 포함해 총 554억원(기금 195, 도비 46, 시군비 213, 자부담 100)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사료 경영체와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림축산

식품부 기금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논 하계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와 경종 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전락작물직물제와 연계해 기금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이번 추가 사업비는 논 하계조사료 신청·이행면적에 따라 시군별로 배정할 예정이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동계작물의 경우 2025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의 경우 2025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만호 기자

도, 축산분야 저탄소농업 실천 직불금 신청기한 연장

농장소재지 관할 시군청 방문신청... 3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31일까지 연장·접수 받는다.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사업에서는 기존의 환경친화사료(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지

원 외에도 분뇨처리 방식 개선(강제송풍·기계교반)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지원 대상 축종도 기존 소·돼지에서 산란계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축산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수행한 저탄소 영농활동도 지원받

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저탄소 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인은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읍면동) 사업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활동 이행 점검(10월), 지급액 확정(11~12월) 과정을 거쳐 시군을 통해 직불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만호 기자

'찾아가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교육' 실시

전북자경위·전북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경찰청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교육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전문 강사가 시군을 순회하며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를 기반으로 금융사기의 유형별 특징, 피해 사례, 예방법,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한, 전북경찰청이 제공하는 최신 사기 수법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도내 기관이나 단체는 사전에 전북자치경찰위원회(☎063-280-3753)로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 공 고 -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총회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총회를 알리고자 합니다.

#일시 : 2025년 3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 티하우스레몬(서울 강남터미널 2층) / 종식(시래마을)

- 안 건 -

- 결산 보고 ● 감사 보고
- 부동산매도건 ● 종중규약변경건
- 기타 안건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회장 박철진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